

경제

이코노 & 비즈 피플

정기섭 경인리츠 회장

“서울 진출... 원룸·오피스텔 공급”



광주 2번째 부동산투자회사...10월 코스피 상장

정직·신용 바탕 전북·순천 소형주택 건설 주력

들게 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경인리츠는 영등포지역에 200세대 규모의 원룸과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다”며 “광주에서는 2번째로 리츠회사를 설립해 서울에 진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989년 고운주택으로 출발, 주택전문회사 고운하이츠(주)와 종합건설 고운시티아이(주)를 일구어냈다. 정 회장은 지난 2007년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종합건설회사인 고운시티아이(주)로 인천에 진출, 상수도 사업본부 저수조 공사(190억원), 인천 영정도 하늘공원택지개발(1000억 규모) 등에 참여하면서 회사규모를 늘려 갔다. 또한 PF자금 지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리츠회사 설립을 구상했던 그는 지난 2011년 실패를

당고 올해 2월 8일 국토부로부터 ‘경인리츠’를 인가받게 됐다.

정 회장은 그동안 도심 소형주택과 원룸을 공급하며 분양가 낮추기와 정착하고 작품성 있는 건물을 짓는데 노력해왔다. 수기동 고운하이츠1차(25세대·17평, 24평)는 분양률 70%, 수기동 고운하이츠 2차(100세대·13평·26평)도 3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대인동 고운하이츠 10평형 원룸 50세대는 100% 임대차 완료되는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광주·인천·서울을 오가는 바쁜 업무중에도 정 회장은 실무와 이론을 갖추기 위해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건물에 철학이 깃들어야 한다는 그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AIP(산업전략과정)수

료하면서 단 한번의 자카나 결석을 하지 않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장 공로상을 수상하며 ‘성실맨’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정 회장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 이 업계에서 대인관계나 비즈니스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20여년 이 업계에 종사하는 동안 성실과 아름다운 건축에 대한 철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경인리츠가 코스피 상장을 완료 한 후 서울지역에 300실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을 연 말게 착공할 계획이다. 경인리츠의 두번째 작품인 썬이다. 이외에 고운하이츠(주)에서 전북에 소형27평형 아파트 300세대 분양과 고운시티아이(주)에서 순천에 250세대를 6월경 착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집 개·보수를 통해 작은 사회공헌을 해왔던 정 회장은 올해부터 그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 더 큰 고민을 할 생각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자동차 생산 4658000대

7년 연속 세계 5위...기아차 광주공장 48만대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7년째 세계 5위를 기록했다.

14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전년 대비 9.0% 증가한 총 465만8000대로, 7년 연속 생산규모 세계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생산량이며, 전세계 생산량의 5.8%에 달했다.

이 중 광주에서는 48만1514대가 생산돼 10.5%를 차지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는 생산된 차종별 실적은 스포티지R이 17만6489대로 가장 많았고, 쏘울 16만7557대, 봉고트럭 10만

1098대, 카렌스 3만8938대, 기타(군수·대형버스) 4072대 등의 순이었다.

세계 1위 생산국은 중국으로 3년 연속 수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자동차 수요 진작 정책이 종료되고 친환경 경차 구매지원정책 축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건축 기조 등에도 불구하고 1841만9000대(세계 생산비중 22.9%)를 생산했다.

미국은 자동차 수요 회복과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의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1.7% 증가한 864만6000대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상승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지진과 전력수급 차질, 가을에 발생한 태국 대홍수로 인한 부품공급 애로 등으로 전년 대비 12.7% 감소한 839만9000대로 3위로 밀려났다. 독일은 내수와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630만4000대로 4위를 유지했다. 이밖에 인도가 394만대로 6위를 차지했고, 브라질(340만6000대), 멕시코(268만대), 스페인(235만4000대), 프랑스(227만8000대)가 뒤를 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 담긴 초콜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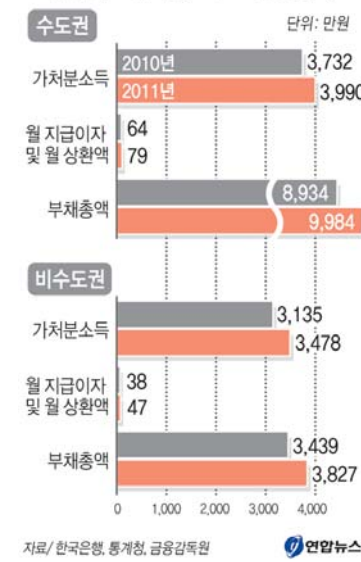
벨란타인데이인 14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이슬빌리지에서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초콜릿 만들기 행사가 열려 참가자들이 사랑이 듬뿍 담긴 초콜릿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집 때문에...’ 가계 빚·이자 ‘눈덩이’

주유소 가격표 특별단속

실소득 대비 부채만 급증한 ‘하우스 푸어’ 양산

자기집 보유 가구의 소득 및 부채



생계에 부담을 느껴 가계지출을 줄이는 ‘광의의 하우스푸어’가 2010년 기준으로 156만90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 가격표시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경부는 최근 주유소들이 가격표시판 규정을 지키지 않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소비자 불만을 제기했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r

Summary of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2,002.64 (-3.10), 코스닥지수 535.36 (+2.17), 금리 (국고채 3년) 3.44% (-0.02), 원·달러 환율 1,123.90원 (+2.00).

삼성家 ‘형제간 재산분쟁’

작년 12월 지역 금융기관 예금·대출 증가폭 줄었다

장남 이맹희씨 이견회 회장 상대 상속 소송

이견회 삼성전자 회장이 형제 간 재산분쟁에 휘말렸다.

재벌가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삼성의 경우 3남이 이 회장이 그를 회장을 승계하면서 그동안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회장을 상대로 재산 소송을 건다는 사실은 이 회장의 형인 이맹희(81)씨도, 이 맹희 회장의 장남이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 씨는 한때 선대 회장의 후계자로 성장해 왔으나 이 맹희 회장의 눈

밖에 나면서 그를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했다. 이 씨는 회고록 ‘묻어둔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사이에 상당한 틈새가 있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대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며 동생 이견회 회장으로의 대권이 양선언 시 충격을 회고하기도 했다.

그런 이 씨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아버지(고 이병철 회장)가 생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생명 등 회사주식을 동생(이견회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2011년 12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12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13.39억원→+7856억원) 됐다.

금융기관의 여신도 전달의 5358억원 증가에서 3037억원 증가로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예금은행은 기업의 부채비율 관리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상황 등으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4121억원→+2912억원)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Hidingk Hotel, featuring property listings, contact information, and hotel amenities.